

# 한국어 공백화 분석: 어휘적 접근 방법<sup>1</sup>

강 우 순  
(경희대학교)

Kang, Woosoon. 1997. An Analysis of Korean Gapping: A Lexical Approach. *Linguistics*, 5-1, 153-168.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gapping in Korean within the HPSG framework. The lexical analysis attempts to generalize linguistic information in terms of a sortal hierarchy.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redundancy and enhancing structure sharing, a specified sortal hierarchy for gapping is suggeste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is analysis is to use a feature GAP in feature structures. The attempted analysis argues for a feature GAP. The rules and principles are combined to analyse the gapping construction in Korean. This analysis shows that gapping can be analyzed assuming the same constituent structure and gives psychologically plausible effect in processing gapping sentences. (Kyung Hee University)

## 1. 서론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 공백화 현상이다. 다음의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공백화 현상을 살피고자 한다.<sup>2</sup>

- (1) 가. 영이가 사과를, 철수가 배를 먹었다.
- 나. 영이가 철수에게 사과를, 철수가 영이에게 배를 주었다.
- 다. 영이가 사과를 천천히, 철수가 배를 빨리 먹었다.
- 라. 나는 영이가 철수에게 무엇을, 철수가 영이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

(1가)은 가장 전형적인 공백화 문장으로 동사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사이며, 첫 번째 등위어에서 동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나)은 동사가 *give*로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등위어에서 동사가 없다. (1다)의 문장은 부가어 '천천히'와 '빨리'가 들어감으

---

1. 이 논문은 Kang(1996a)을 발전시킨 논문이다.  
2. (1)의 예문에 나오는 주격조사는 '이/가'로 통일하기로 한다. '은/는'는 주격 외에도 초점이나 강조가 들어가므로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로 인하여, 첫 번째 등위에 동사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1ㄷ)에서는 '무엇을'이라는 비논항을 삽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이 이 문장 또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1)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 공백화로 정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문장이 등위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문장 중 마지막 등위어를 빼고, 나머지 등위어는 동사가 없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백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틀 내에서 한국어 공백화를 분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2. 공백화 분석을 위한 도구

일반적인 공백화 분석을 위한 도구로 3가지가 필요하다. 속성 위계와 공백과 어순이다. 속성 위계는 공백화 현상이 구성 성분 구조에서 어디에 속하는 가를 보여주어서, 공백화가 등위구조이며, 등위구조 중에서도 문장의 등위구조만을, 그리고 공백을 가진 것만을 한정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조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잉여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백은 공백화 현상을 다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백은 흔적과 다르다. 흔적은 구단위 (phrasal level)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공백은 어휘 단위 (lexical level)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sup>3</sup>

HPSG에서의 어순은 구구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본다. 이것은 Dowty, Kathol, Cho, Calcagno 등에 의해서 잘 보여지고 있다.<sup>4</sup>

3. '공백'이 공백화 현상을 다룰 때는 동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다른 품사에 적용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공백'의 타당성이 확고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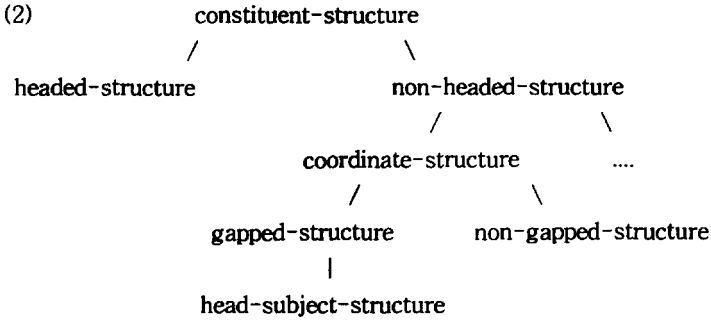
Kim(1997)에서는 '흔적 (trace)' 없이도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흔적'은 구단위에서의 흔적이고, 아직 공백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그리고, Kim(1997)에서 어휘 단계에서의 '흔적'을 허용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Kim(1997)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어휘 정보인데, 공백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생략되는 것이므로, 그것의 어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이 논문에서는 어순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다. 어순에 대해서 Chung(1995), Kang(1996), Cho(1996), Reape(1991), Dowty(1995), Kathol(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의 구구조에 관한 문제는 Chung(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Chung은 한국어 가 위계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로 본다. 이것은 한국어의 여러 가지 현상을

2.1 속성 위계

속성 위계는 정보의 공유와 잉여성의 배제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다. 여기에서는 등위구조 위계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의 속성 위계는 공백화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백화 구조는 등위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백화 구조에 속하는 것은 문장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 주고 있다. 반면 공백화 구조가 아닌 등위구조는 모든 종류의 핵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sup>5</sup>

2.2 공백

공백화 현상이 분석에 있어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은 동사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백화에 대한 변형문법에서의 분석은 전무하다. 반면 HPSG 내에서의 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sup>6</sup> 이 장에서는 ‘공백’이 왜

---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hung에 따라 한국어의 구조를 수평구조로 본다.

한국어 공백화에 관한 어순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것은 Kang (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 i. 한국어 공백화를 위한 선행 규칙
    - ㄱ. [1] < V[VALENCE [1]]
    - ㄴ. [ ] < GAP-DTR
  - ii. 등위소와 등위어 사이의 선행 규칙
    - [CONJ  $\alpha$ ] < [CONJ  $\beta$ ]
    - where  $\alpha \in \{nil\}$ ,  $\beta \in \{그리고, 그러나\}$
5. 핵어 구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Pollard & Sag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6. Kang (1996), Cho (1996) 등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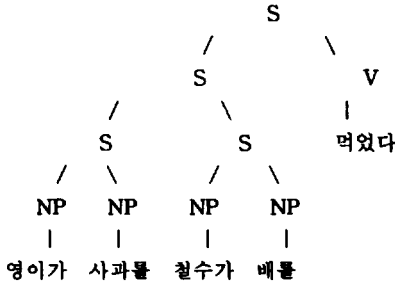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약 공백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HPSG 틀 내에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1 공백의 필요성

공백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백'을 사용하지 않은 분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Cho(1996)의 분석은 '공백'이나 흔적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이다. Cho와 Kang의 분석의 차이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같은 문장을 분석한 구조를 각각 보이고자 한다.<sup>7</sup>

- (3) 영이가 사과를, 철수가 배를 먹었다.

Cho



(3)과 같이 분석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성분의 문제이다. '공백'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 (4) ㄱ. S -> S, V  
 ㄴ. S -> NP, NP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칙은 문장이 명사구 (NP)와 동사구 (VP)로 확장되는 (5)에 나타나 있는 구조이다.

- (5) S -> NP,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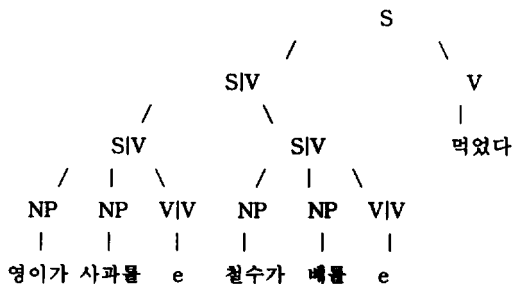
만약 (5) 이외에 (4ㄱ, ㄴ)과 같은 다른 문장 규칙을 허용하게 된다면 문장을 분석할 때마다, 이것이 문장인지 동사구인지를 인식하는데 많은 시간이

7.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질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나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걸릴 것이다. 더군다나 (4나)과 같은 규칙은 문장임에도 가장 중요한 동사가 빠진 구조이기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Cho와는 달리 '공백'을 인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문장에 대한 구절 구조 규칙을 바꾸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5)의 규칙으로 문장 성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6). Kang



'혼적'과 구별하기 위해, '/' 대신 '|'를 사용하였다. '혼적'과 '공백'이 같이 나오는 문장도 있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혼적'과 '공백'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8</sup>

위에서 살펴본 것은 '공백'의 통사적인 측면이었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공백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Flickinger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의미론은 합성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위의 공백화 현상을 의미론에 기초해서 다룬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먹었다(<영이, 사과>, <철수, 배>)

(7)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먹었다'의 관계는 <영이, 사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철수, 배>의 관계에서도 성립한다.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의 문장은 영이가 사과를 먹었고, 철수가 배를 먹었다의 해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백'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론외적인 측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의 문장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영이가 사과를'에서 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이곳에 발생되지 않는 동사를 가정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8. '혼적'이 쓰이는 경우는 영어에 있어서 주제화 (topicalization), wh-의문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논문은 '혼적'에 관한 논문이 아니므로 주제화나, wh-의문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Kim(1997)에 자세한 논의가 나오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측면에 있어서도 '공백'의 존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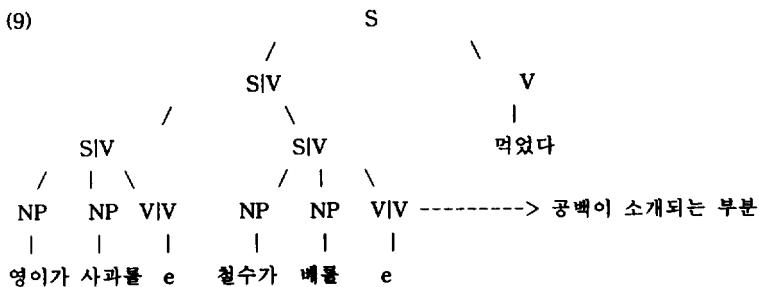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공백'의 어휘 목록에 관한 것이다.

2.2.2 공백의 어휘 목록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공백'은 음성적으로 비어있으나, 정보는 풍부하다. 그 정보는 동사이다. 음성적으로 비어있으므로, LOCAL, NONLOCAL과 같은 위상의 자질인 GAP을 설정하고 이 GAP이 INHERITED GAP과 TO-BIND GAP으로 나뉜다. 이것은 SLASH 자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sup>9</sup> '공백'을 자질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8) PHONOLOGY
- SYNSEM LOCAL|CAT [1]
- NONLOCAL
- GAP INHER|GAP <[1]>
- TO-BIND|GAP < >

(8)의 자질 구조로 우리는 공백화에서 '공백'이 소개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무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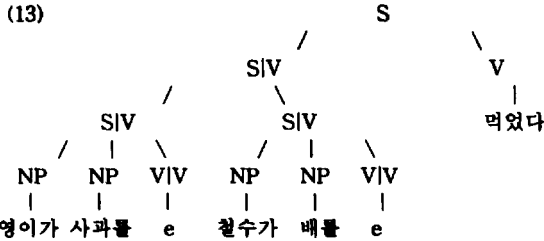


2.2.3 공백과 관련된 규칙과 원리

소개된 '공백'을 마지막 단계에서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 소개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SLASH 자질이 소개되는 HEAD-FILLER

9. '공백'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분석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존에 HPSG에서 사용하던 친숙한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공백화가 지켜야 하는 원리들을 나열한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등위어에 대한 정의이다. 등위어는 그것의 모범주와 같아야 하고 비국부 자절도 같아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SPEC 원리인데 이것은 등위소인 '그리고,' '그러나' 등을 정의하기 위한 원리이다. '그리고,' '그러나' 등을 MARKER로 분리하고자 한다.<sup>10</sup>

(14) 공백화가 지켜야 하는 원리

ㄱ. 등위구조 원리<sup>11</sup>

등위 구조에서, 각 등위어의 CATEGORY와 NONLOCAL 값은 그 등위어의 모구조와 같다.

ㄴ. SPEC 원리

핵어 구의 비핵어 딸의 속성이 functional을 SYNSEM|LOCAL|CATEGORY|HEAD의 값으로 가질 때, 그것의 SPEC 값은 구의 DAUGHTERS|HEAD-DAUGHTER|SYSEM 값과 같아야만 한다.

ㄷ. 공백 자절 원리

In a headed phrase, the value of SYNSEM|INHERITED|GAP

10. '그리고,' '그러나' 등을 HEAD로 보고자 시도하는 분석도 있다. HEAD로 보고자 하는 분석을 GAP과 같이 다루는 시도도 흥미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GAP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11. 이것은 Pollard & Sag(1994)에 나온 것이다. 영어로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1) ㄱ. The Coordination Principle

In a coordinate structure, the CATEGORY and NONLOCAL value of each conjunct daughter is identical to that of the mother.

ㄴ. The SPEC Principle

In a headed phrase whose nonhead daughter(either the MARKER-DAUGHTER or COMPLEMENT-DAUGHTERS|FIRST) has SYNSEM | LOCAL|CATEGORY|HEAD value of sort functional, the SPEC value of that must be token-identical with the phrase's DAUGHTERS|HEAD-DAUGHTER|SYNSEM value.



is the list difference of the concatenation of the values of all the daughters and the value of SYNSEM|TO-BIND|GAP on the HEAD-DAUGHTER.

이 장에서는 공백에 대한 어휘 목록과 공백을 설명하기 위한 규칙, 원리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공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장에서 분석을 하겠다.

### 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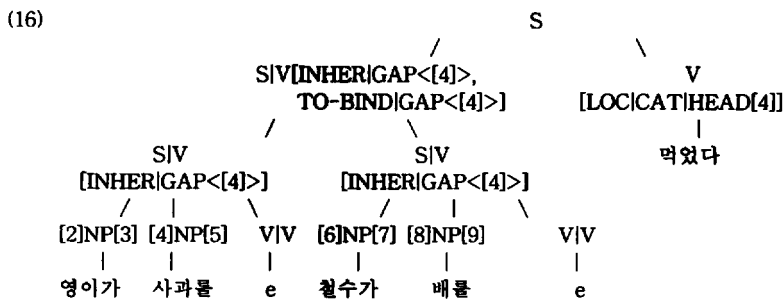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도구를 가지고 공백화를 분석하고, 그 공백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3.1 공백화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 소개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음의 문장을 분석하려고 한다.<sup>12</sup>

- (15) ㄱ. 영이가 사과를, 철수가 배를 먹었다.
- ㄴ. 영이가 철수에게 사과를, 철수가 영이에게 배를 주었다.
- ㄷ. 영이가 사과를 천천히, 철수가 배를 빨리 먹었다.
- ㄹ. 나는 영이가 철수에게 무엇을, 철수가 영이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15ㄱ)의 문장을 나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12. 예문 (15)에 있는 문장들은 (1)에 있는 문장을 다시 쓴 것이다.

(16)의 '공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와 같다. 이것은 공백을 소개하는 것이다. 공백화는 등위구조에서만 일어나므로, 공백은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개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공백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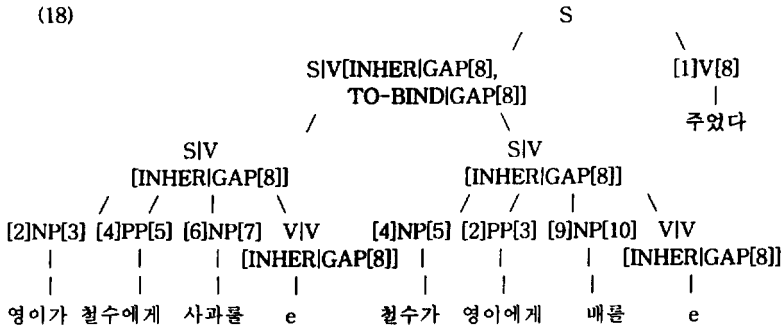
```
(17) ㄱ. LOC      CAT  HEAD [4]
          VAL  SUBJ <[2]NP[3]>
          COMPS <[4]NP[5]>
      CONT  REL  eat
          EATER [3]
          EATEN [5]
      GAP|INHER|GAP <[4]>
```

```
ㄴ. LOC      CAT  HEAD [4]
          VAL  SUBJ <[6]NP[7]>
          COMPS <[8]NP[9]>
      CONT  REL  eat
          EATER [7]
          EATEN [9]
      GAP|INHER|GAP <[4]>
```

(17ㄱ)은 첫 번째 등위어에 있는 공백을 나타낸 것이며, (17ㄴ)은 두 번째 등위어에 있는 공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된 공백이 공백 자질 원리에 의하여 모범주로 계속해서 자질이 공유되며, INHER|GAP은 TO-BIND|GAP을 만나면 종결된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구조는 GAP-HEAD 규칙에 의해 보장되어 진다.

다음은 (15ㄴ)의 문장 '영이가 철수에게 사과를, 철수가 영이에게 배를 주었다'를 나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13. [1]:[2]와 같은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앞의 [1]의 전체 범주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뒤의 [2]는 그 범주의 인덱스만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는 편집의 편의상 자질 구조에 대한 선을 그리지 않았다. 같은 단계의 자질은 그 위치를 같은 위치에 동으로써 표시하였다.



첫 번째 등위어에 있는 공백과 두 번째 등위어에 있는 공백이 소개되어 이 공백이 공백 자질 원리에 의해 INHER|GAP이 TO-BIND|GAP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게 되며, 맨 꼭대기에 있는 국부 구조는 GAP-HEAD 규칙에 의해서 보장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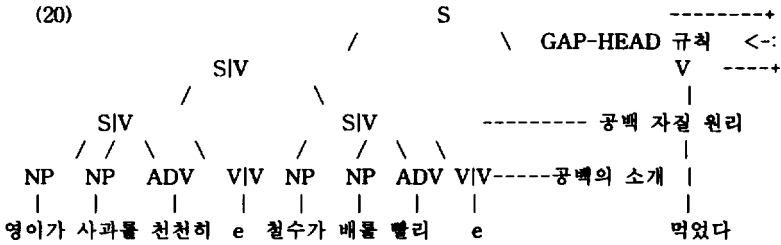
위의 공백에 대한 자질 구조는 아래와 같다.

- (19) ㄱ. LOC CAT HEAD [8]  
 VAL SUBJ <[2]NP[3]>  
 COMPS <[4]PP[5], [6]NP[7]>  
 CONT REL *give*  
 GIVER [3]  
 GIVEE [5]  
 GIVEN [7]  
 GAP|INHER|GAP <[8]>
- ㄴ. LOC CAT HEAD [8]  
 VAL SUBJ <[4]NP[5]>  
 COMPS <[2]PP[3], [9]NP[10]>  
 CONT REL *give*  
 GIVER [5]  
 GIVEE [3]  
 GIVEN [10]  
 GAP|INHER|GAP <[8]>

(19ㄱ)은 (18)의 첫 번째 등위어의 공백이며, (19ㄴ)은 (18)의 두 번째 등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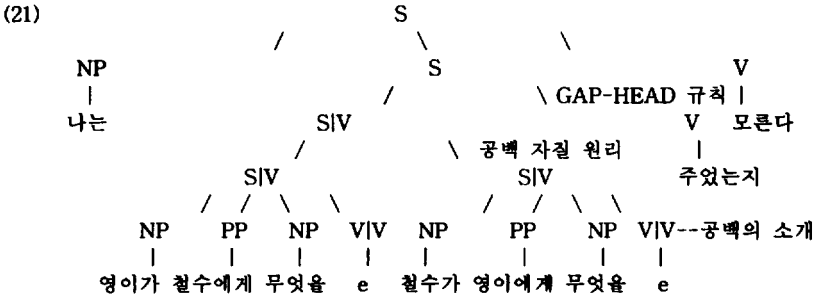
어의 공백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질 구조는 서로의 자질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등위어의 주어가 두 번째 등위어의 목적어가 되고, 첫 번째 등위어의 목적어가 두 번째 등위어의 주어가 됨을 인덱스를 이용하여 잘 나타낼 수 있다.

(15ㄷ)의 문장은 ‘영이가 사과를 천천히, 철수가 배를 빨리 먹었다’의 문장으로 부가어가 첨가된 문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가어를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음으로, 부가어가 들어간 공백화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20)에 그려진 나무 그림은 (15ㄷ)의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20)의 나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공백이 소개되고, 그 공백들이 공백 자질 원리에 의해 올라가며, 그것이 GAP-HEAD 규칙에 의해 종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5ㄹ)의 문장은 ‘나는 영이가 철수에게 무엇을, 철수가 영이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의 문장으로 wh-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다. 이 문장 역시 지금까지 설명해온 공백화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을 다음 (21)의 나무 그림에서 알 수 있다.



(21)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백이 소개되고, 그 공백은 공백 자질 원리

에 의해 TO-BINDIGAP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며, GAP-HEAD 규칙에 의해 종결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공백이 아닌 실제로 나타난 동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 3.2 실제 나타난 동사의 의미

이 단락에서는 공백화의 의미 중에서 동사에 초점을 두어 동사의 자질 구조 내의 의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보겠다. 다음의 예문은 위에 나온 예문을 다시 쓴 것이다.

- (22)=(15)    ㄱ. 영이가 사과를, 철수가 배를 먹었다.  
               ㄴ. 영이가 철수에게 사과를, 철수가 영이에게 배를 주었다.  
               ㄷ. 영이가 사과를 천천히, 철수가 배를 빨리 먹었다.  
               ㄹ. 나는 영이가 철수에게 무엇을, 철수가 영이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

3.1에서는 각각의 공백에 대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단락에서는 실제로 나타난 동사에 대한 의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2ㄱ)의 '먹었다'의 의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자질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 (23) '먹었다'의 어휘 목록<sup>14</sup>

```
PHONOLOGY /먹었다/
SYNSEM|LOCICAT| HEAD [4] verb{fin}
SYNSME|LOC CAT VAL SUBJ {<[2]NP[3]>, <[6]NP[7]>}
COMPS {<[4]NP[5]>, <[8]NP[9]>}
CONT REL eat
EATER ([3],[7])
EATEN ([5],[9])
```

'먹었다'의 어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먹었다'의 HEAD가 동사이고, 그것의 항가에서 주어가 되는 것은 두 개인데 하나는 '영이가'이고 다른 하나는 '철수가'이다. 보어가 되는 것도 두 개인데 하나는 '사과를'이고 다른 하나는 '배를'이다. 마찬가지로 의미 내용에 있어서도, 먹다의 관계가 있고

14. 시제에 관한 것은 배제하겠다.

먹는 사람은 영이와 철수의 인덱스 값이 되고, 먹히는 것은 사과와 배의 인덱스 값이 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통사부와 의미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부의 정확하고 분명한 분석이 요구된다.<sup>15</sup>

그럼 다음으로 알아 볼 것은 (22ㄴ)의 '주었다'의 어휘 목록이다. 이것은 보어의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보어가 하나인 값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24) '주었다'의 어휘 목록

```
PHONOLOGY /주었다/
SYNSEM|LOC|CAT HEAD [8] verb{fin}
SYNSEM|LOC|CAT|HEAD VAL SUBJ (<[2]NP[3]>, <[4]NP[5]>)
COMPS(<[4]PP[5], [6]NP[7]>, <[2]PP[3], [9]NP[10]>)
CONT REL give
GIVER {[3],[5]}
GIVEE {[5],[3]}
GIVEN {[7],[10]}
GAP|INHER|GAP <[8]>
```

두 개의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다. (22ㄱ)이나, (22ㄴ)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석에서는 3개의 다른 동사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개는 '공백'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동사이다. 실제로 이 세 개의 동사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같은 것은 그것이 동사라는 것이며, 그 동사가 하위 범주화는 범주는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적인 내용이나 음성적인 내용은 다르다. 이 모든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다른 동사를 가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다.

#### 4. 결론

이 분석은 HPSG 틀을 이용하여, 그 틀 내에서 어떻게 한국어의 공백화가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분석의 장점과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며 이 글을 맺도록 하겠다.

이 분석의 장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해왔던 구성 성분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해 오던 구절 구조를 잘 준수하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분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6</sup>

15. 사람들은 통사부에서 못하는 것을 의미부이나 화용부으로 넘긴다고 한다. 그러나 통사부에서 어떤 실마리나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의미부나 화용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따라서 통사론적인 정확한 분석이 형식 이론에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부에서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은 앞 등위어에서도 동사가 있는 해석이다. 이것을 합성적으로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가지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백화는 통사론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의 핵심인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핵심인 동사를 인정하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동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의 예문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동사의 수는 두 개인데 반해 우리가 분석하는 동사의 수는 세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동사가 두 개지만 그 동사 두 개가 지닌 의미가 합쳐지면 또 다른 동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론에의 부담이다. '공백'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이론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공백'이라는 자질을 도입함으로써, 공백 자질 원리라든가, GAP-HEAD 규칙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백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다. 공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론에 다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되든 이론의 합리화를 위한 분석이 아니라 언어 현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김종복. 1997. "무한의존구문의 무흔적, 제약기반이론적 접근." 원고.  
 Calcagno, Mike. 1993. "Toward a Linearization-Based Approach to Word Order Variation in Japanese." *Papers in Syntax.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No 42. Edited by Andreas Kathol and Carl Pollard. 26-45.  
 Chang, Suk-Jin. 1993. "Gapping in Korean - An HPSG Analysis -." handout for HPSG Workshop. OSU.

---

16. Cho의 분석이나 흔적이 없는 분석에서는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것이 매우 특이하게 된다. 이 예에서 본다면 '먹다'라는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것이, <영이가 사과를>과 <철수가 배를>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 Cho, Sae-Youn. 1996. *Non-Constituent Coordination as a Subtype of Constituent Coordination*. Hankuk Publisher.
- Cho, Sae-Youn. 1997. "Inalienability and Valence Increase in Korean: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and Passive."
- Chung, Chan. 1995. *A Lexical Approach to Word Order Vari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Dowty, David. 1995. "Toward a Minimalist Theory of Syntactic Structure." manuscript.
- Gazdar, Gerald, Ewan Klein, Geoffrey Pullum, and Ivan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asper, Robert, Andreas Kathol, and Carl Pollard. 1995. "Linear Precedence Constraints and Reentrancy." HPSG Workshop in German.
- Kathol, Andreas. 1993. "Linearization and Coordination in German." *Papers in Syntax*. OSU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2. OSU 117-151.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1: Fundamentals*. CSLI Lecture Notes Number 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 Pollard, Carl, Robert Kasper, and Robert Levine. 1994. "Studies in Constituent Ordering: Toward a Theory of Linearizatio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Research Proposal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 Reape, Mike. 1991. "Getting Things in Order." In Horock and Sijsma, eds. (Earlier version presented at the Tilburg Convergence on Discontinuous Constituency, 1989)

강우순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언어교육 연구소 연구부

e-mail: wkang@nms.kyunghee.ac.kr